

1974년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의 발굴조사와 성과

-도로 유구를 중심으로-

이현태_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1974년 박물관 부지의 발굴조사와 확인된 유구

III.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가 갖는 의미

IV. 맺음말

1974년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의 발굴조사와 성과

-도로 유구를 중심으로-

이현태

I. 머리말

경주 월성이 신라 왕경의 중핵中核을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월성의 내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가 일정한 시점부터는 월성의 범위, 즉 궁궐의 범위가 월성 외곽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 후술하겠지만 확장된 궁궐의 범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이하 박물관으로 약칭) 부지도 포함된다. 월성 내부와 월성 해자를 제외하면 확장된 궁궐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이 조사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박물관 부지이다. 따라서 박물관 부지는 신라 왕궁, 나아가 신라 왕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부지는 다음의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내 시 발굴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 기관	조사 지점	조사 내용	발간자료
1968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신축부지 (일정교 동쪽 언덕)	건물지	-
1974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북동쪽 편의점 일대	유구 미확인	국립경주박물관, 『國立慶州博物館敷地内 發掘調査報告書 -1974年 發掘調査-』, 2016
		신라역사관 서쪽 경사면	건물지, 우물, 석렬	
		정문 앞 주차장 부지	우물, 석렬, 석조石造 유구	
1998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도로, 구상 유구, 폐기 유구, 건물지, 우물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内 發掘調査報告書』, 2002
1999	국립경주박물관	월지관 남쪽 옥외 화장실 증개축부지	유구 미확인	국립경주박물관, 『연보 -1999년도-』, 2001
		문화상품점 부지	유구 미확인	
2000	국립경주박물관	연결통로 부지	수혈, 주혈, 적심, 담장, 우물, 도로, 청동기 주거지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内 發掘調査報告書』, 2002

1968년과 1974년 박물관 신축 부지를 정리整地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유구는 조사 내용과 출토품이 아주 소략하게 보고된 채²⁾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다행히 최근 1974년 조사분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³⁾ 이에 따라 2002년에 발간된 1998·2000년 조사분⁴⁾과 함께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박물관 부지의 성격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 부지에서 조사된 유구의 전체적인 현황과 양상은 이미 한 차례 검토된 바 있다.⁵⁾ 그렇지만 1974년에 발굴조사된 구역의 경우, 박물관 부지의 다른 조사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성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최근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에 유구 도면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해당 유구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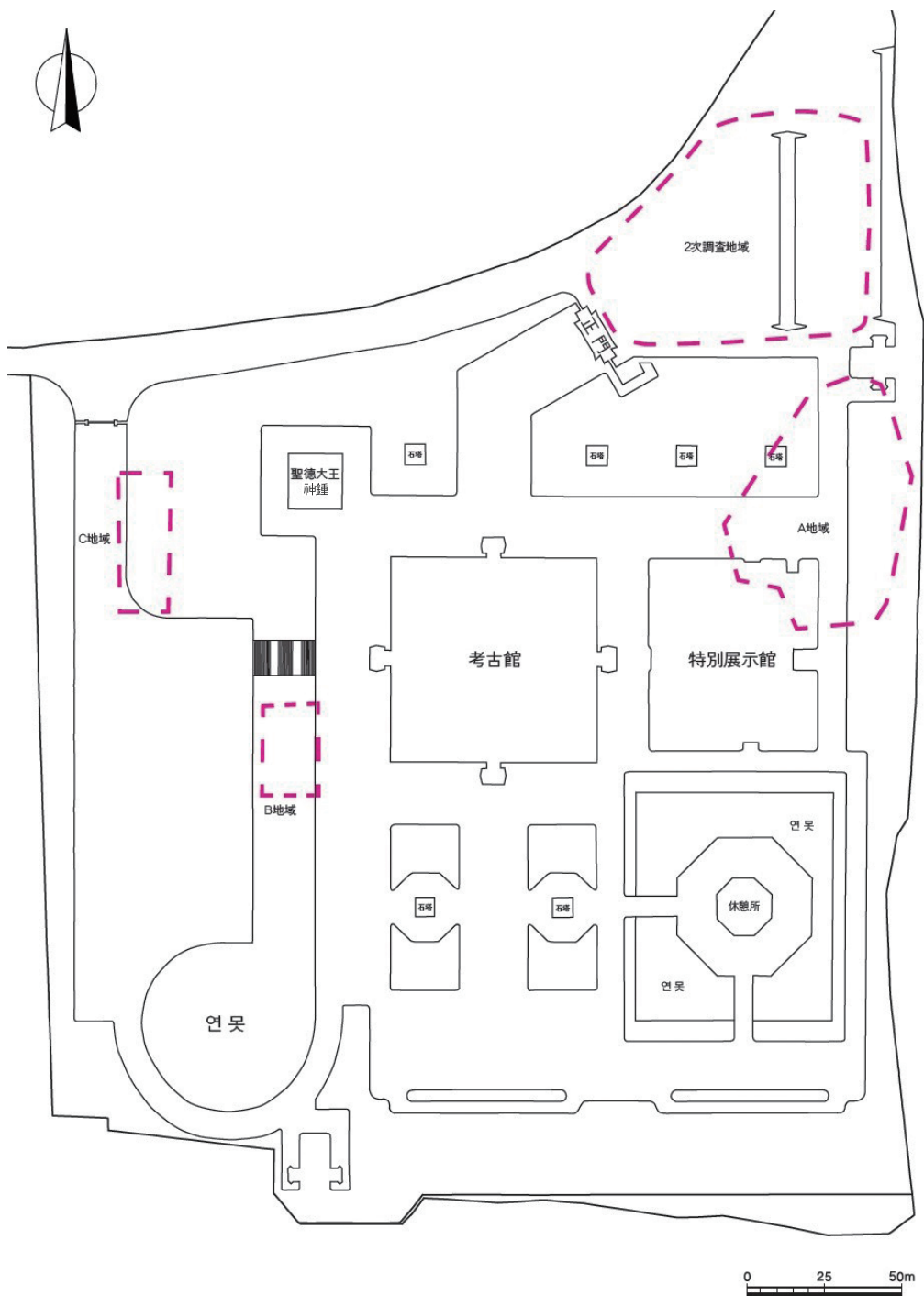
이에 이 글에서는 1974년 발굴조사된 박물관 부지의 유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4년에 조사된 유구에 천착하려는 것은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박물관 부지를 신라 궁궐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면이 크다. 우선은 1974년 박물관 부지에서 조사된 유구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1974년에 확인된 유구 가운데 특히 도로 유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 글이 신라 궁궐의 범위와 관아 구역의 설정 등 신라 왕경의 복원안을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Ⅱ. 1974년 박물관 부지의 발굴조사와 확인된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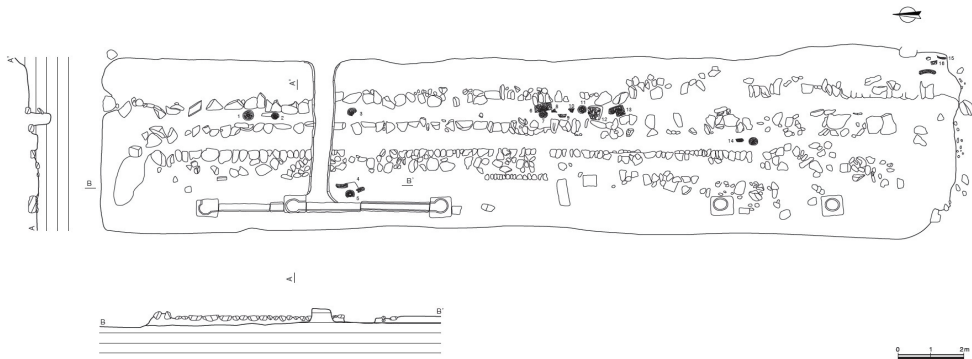
1974년 박물관 부지의 발굴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1974년 6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A, B, C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재 박물관 정문 옆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에서 실시되었다(도 1) 참조. 1·2차 조사는 굴착기나 불도저 등을 이용한 박물관 부지의 정지로 인해 유구가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졌다.

A지역에서는 별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 신라역사관(구 고고관)의 서쪽 경사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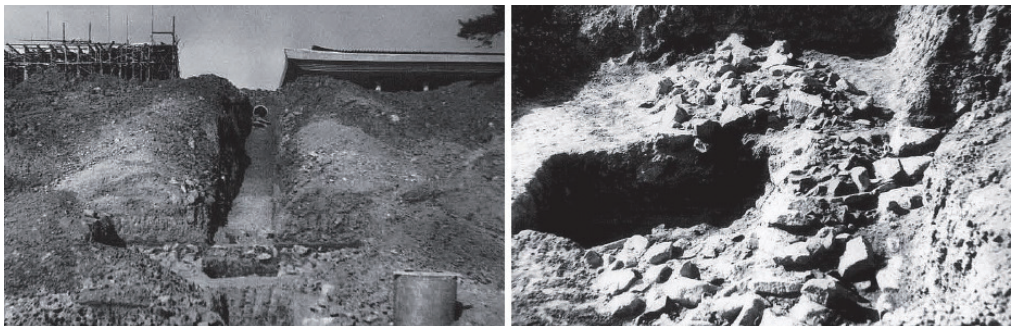
- 1 朴方龍, 「新羅 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考古歷史學志』 11·12(1996); 『新羅都城』(서울: 학연문화사, 2013) 재수록, pp.193-199;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1997), pp.159-162;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27(1998), pp.232-235.
- 2 鄭良模·姜友邦,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一次調査」, 『박물관신문』 43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74), p.1; 鄭良模·姜友邦, 「新築 慶州博物館 境內 新羅時代 遺構 第二次 調査」, 『박물관신문』 45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75), p.1.
- 3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1974年 發掘調査-』(2016).
- 4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2002).
- 5 이한상, 「慶州 月城 東南쪽 王宮遺蹟 調査의 成果 - '南宮'의 景觀復原을 위하여 -」,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6(2005).



도 1. 1974년 조사 구역의 위치(국립경주박물관, 2016)



도 2. B지역 유구 배치도(국립경주박물관, 2016)



도 3. C지역 석렬 유구 노출 모습(국립경주박물관, 2016)

해당하는 B·C지역에서는 건물지와 우물, 석렬石列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B지역 유구 배치도(도 2)에 나타나 있듯이 5개의 원형 초석礎石과 초석 사이에 부분적으로 장대석長臺石이 노출되었으나 건물지의 규모를 판별하기는 곤란하다. B지역의 석렬 유구는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발굴조사 당시에는 초석과 석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담장으로 보기는 힘들고 지붕의 낙수반이로 추정하였다.⁶⁾ 하지만 유구의 잔존 양상으로 미루어 담장과 배수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⁷⁾ B지역의 경우 경사면에 위치하므로 정연한 건물이 배치되기는 쉽지 않고,⁸⁾ 담장으로 추정되는 가장 서쪽의 석렬 유구와 건물지 사이의 간격도 좁은 편이어서 건물지와 석렬 유구가 동 시기에 존재하였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⁹⁾ 다만 B

6 鄭良模·姜友邦, 앞의 글(1974), p.1.

7 이한상, 앞의 논문(2005), pp.271-272;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16), p.27.

8 鄭良模·姜友邦, 앞의 글(1974), p.1; 이한상, 앞의 논문(2005), pp.271-272;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16), p.27.

9 발굴조사 담당자는 건물지의 경우 초석의 형태나 배치 상태가 모두 달라서 건물지가 원상태가 아니라 후대에 여기저기서 초석을 모아 새로이 기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鄭良模·姜友邦, 앞의 글(1974), p.1].

지역에서 여러 점의 용면瓦龍面瓦와 암막새, 수막새 등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석렬 주변에 상당한 권위를 갖춘 건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C지역의 경우 유구 도면은 남아 있지 않지만, 너비 1.5m의 석렬과 함께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⁰⁾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도 3)을 참고하면 석렬은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조사 구역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석렬 주변에서 다른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C지역의 서쪽은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남천(문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C지역의 석렬 유구는 통일신라 때 박물관 부지의 서쪽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¹¹⁾ 향후 C지역 일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석렬 유구의 형태나 성격이 한층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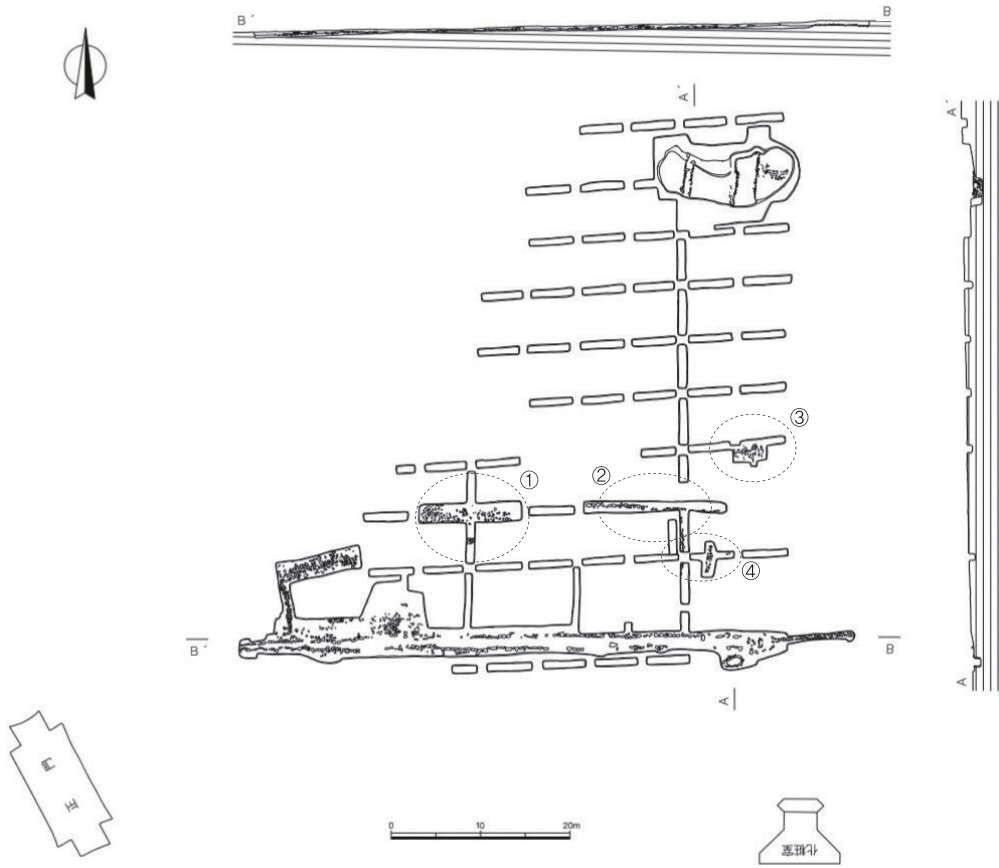
2차 조사 구역인 주차장 부지에서는 석렬 유구와 우물, 석조石造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석렬 유구는 2줄의 석렬이 1m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동서 방향으로 70m 가량 노출되었다. 30~60cm 크기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석렬 유구는 동서쪽으로 이어지지만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2줄의 석렬은 양자가 마주보는 안쪽 면만 다듬은 흔적이 있었고, 조사 당시부터 배수로로 추정하였다.¹²⁾ 흥미로운 점은 석렬 유구의 서쪽 끝 부분에서 북쪽으로 불규칙한 잔돌이 2m 너비로 깔려 있었다는 사실인데, 주차장 부지의 유구 도면을 살펴보면 잔돌이 깔려 있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차장 부지의 유구 도면은 2016년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주차장 부지 부석數石 및 석렬 유구 평·단면도(도 5·6)가 주차장 유구 배치도(도 4)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도 5>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한 2줄의 석렬이 주목되는데, <도 4>에서 가장 북측에 위치한 반월형 석조 유구의 동쪽에 위치한 2줄의 석렬을 연장시켜 보면 ②번 지점을 통과한다. <도 4>에서 석조 유구 내 동쪽 석렬과 <도 5>의 석렬은 너비가 2m로 동일하다. 따라서 <도 5>는 <도 4>의 ②번 지점 트랜치를 보다 확장시켜 조사한 유구 도면으로 보인다. <도 6>의 경우 트랜치 방향을 고려할 때 <도 4>의 ④번 지점을 확장시켜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5·6>의 세부 위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도 4>의 ②·④지점에 잔돌이 깔려 있었음은 한층 분명해진다. <도 4>의 ①번 지점에도 잔돌이 깔려 있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즉, <도 4~6>을 통해 보면 주차장 부지의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위치한 배수로의 북쪽으로는 ①·②번 지점까지 잔돌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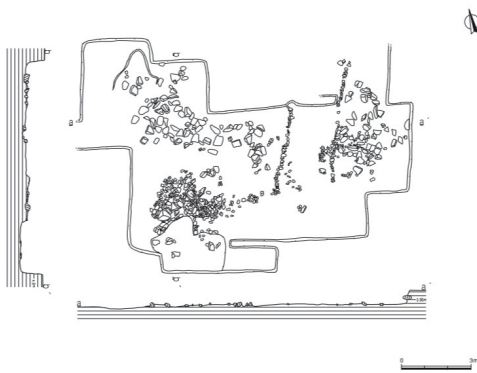
10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16), p.23.

11 박물관 연결통로 부지에서는 너비 1.3~1.4m의 통일신라시대의 담장이 조사된 바 있다[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02), pp.185-186].

12 鄭良模·姜友邦, 앞의 글(1975), p.1.



도 4. 주차장 부지 유구 배치도(국립경주박물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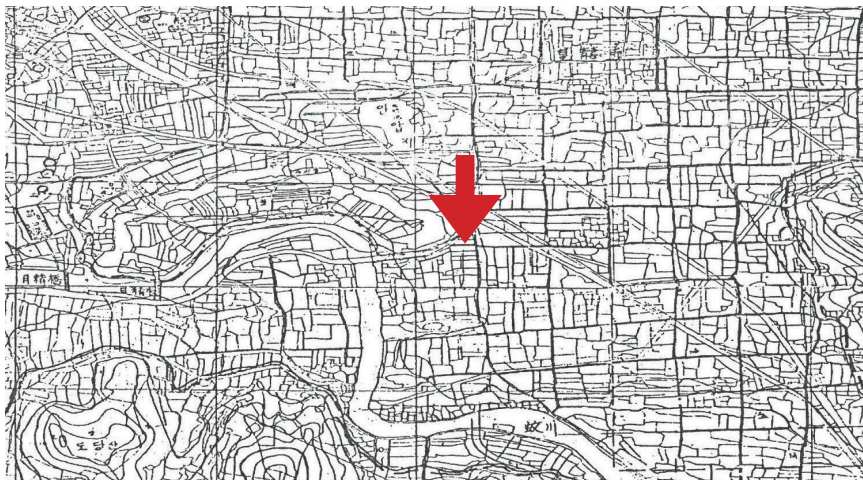
도 5. 주차장 부지 부석 유구 평·단면도
(국립경주박물관, 2016)



도 6. 주차장 부지 석렬 유구 평·단면도
(국립경주박물관, 2016)

이와 관련해 『박물관신문』에 실린 약보고¹³⁾를 바탕으로 주차장 부지에서 배수로의 북쪽에 깔려 있는 잔돌은 동서도로의 일부이고, 서쪽에서 배수로가 끊어지면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남북도로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¹⁴⁾ 현재로서 남북도로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도 4~6>에서 확인되는 잔돌의 분포 양상을 고려하면 배수로 북쪽에는 최대 너비가 15m에 이르는 동서도로가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서 발굴된 배수로의 너비가 1m이고 석렬의 마주보는 면만 약간 다듬은 점은 황룡사 동편의 S1E1유적에서 확인된 도로의 측구(側溝)¹⁵⁾를 비롯해 왕경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의 측구와 흡사한데, 이 점은 석렬 유구의 북쪽에 깔린 잔돌이 도로 유구였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주차장 부지에 동서도로가 있었으리란 점은 지적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박물관 부지 일대의 지적도(도 7)는 일제강점기 이래 1970년 중반까지 경주 지역의 지적도와 지도를 종합해 만든 것인데,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서 동서도로가 놓인 부분(화살표로 표시한 지점)에서 동쪽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어지는 실선이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의 지적도를 비롯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신라 왕경의 구조를 살핀 연구에서도 박물관 부지는 대부분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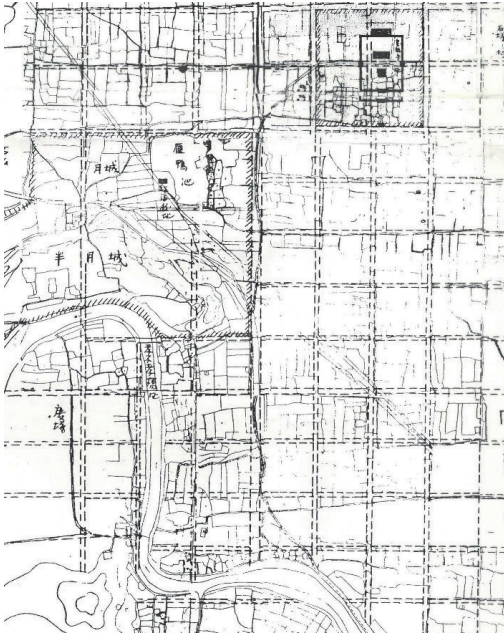
도 7. 박물관 부지 일대의 지적도(장순용, 1976)

13 鄭良模·姜友邦, 앞의 글(1975),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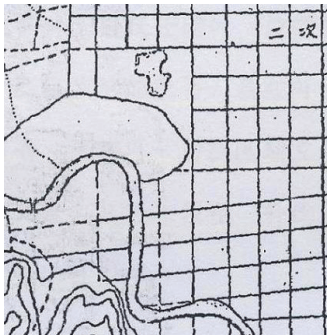
14 이한상, 앞의 논문(2005), pp.272-273.

1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本文)』(2002), pp.446-458.

16 藤島亥治郎, 「新羅王京建築史論」, 『建築雜誌』 44, pp.530-531(1930); 『朝鮮建築史論(복각본)』(서울: 경인문화사, 1969), 新羅王京復原圖: 張順鏞,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78; 鬼頭清明, 「新羅における都城制の發達」, 『朝鮮歷史論集(上)』(東京: 龍溪書舍, 1979), p.204; 禹成勳, 「新羅王京 慶州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18.



도 8.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신라왕경복원도(1930)



도 9. 장순웅의 가로망 발전단계 (1976)



도 10. 기토 기요아키(鬼頭清明)의 신라왕경약도(1979)



도 11. 우성훈의 신라 왕경의 조방계획 범위(1996)

자형 구획으로 복원하였다[(도 8~11) 참조].¹⁶⁾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연구자마다 박물관 부지를 둘러싼 도로를 조금씩 달리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지금도 가장 완벽한 신라 왕경지도로서 불후의 걸작”¹⁷⁾이란 평가는 받는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신라왕경복원도(도 8)에서는 박물관 부지를 동서·남북도로에 의해 격자 형태로 구획된 것으로 복원하였다. 반면 경주의 지역별 지형

17 藤島亥治郎, 『韓の建築文化－わが研究五十年』(東京: 藝艸堂, 1976); 이광노 역, 『韓의 건축문화－나의 연구 60년-』(서울: 곰시, 2011), p.206.

적 조건을 고려하여 토지 구획 양상을 복원한 까닭에 지금까지 제시된 왕경 복원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면서 토지 구획의 분석과 신라 왕경의 복원도 제작에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¹⁸⁾ 우성훈의 복원안(도 11)에서는 박물관 부지를 반듯한 격자형으로 복원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도 7>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경 복원도를 작성하는 데 근간이 된 지적도상의 토지 구획은 서북쪽 모서리 부분이 직각이 아닌 사선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지시마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직각 형태의 토지로 구획한 것과 달리, 우성훈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비스듬한 형태로 복원하였던 것이다. 장순용의 복원안(도 9)에서 박물관 부지의 서북쪽 모서리를 직각 형태로 복원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이 아닌가 한다. <도 7>을 염두에 둘 경우 박물관 부지의 서북쪽 모서리 부분은 직각이 아니라 비스듬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박물관 주차장 부지까지 이어져 오던 동서 방향의 직선이 박물관 정문 북쪽 일대에서 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꺾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동서도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이 도로가 동쪽으로는 연장되지만 서쪽으로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74년 박물관 부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지역을 발굴조사한 결과 석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박물관 정문 동편의 주차장 부지에서는 최대 너비가 15m에 이르는 동서도로가 배수로와 함께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Ⅲ.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가 갖는 의미

1974년 박물관 부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출토품 가운데 편년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의봉4년개토(儀鳳四年開土)’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이다. 이 기와는 주차장 부지의 석조 유구에서 5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의봉 4년은 문무왕 19년인 679년에 해당한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19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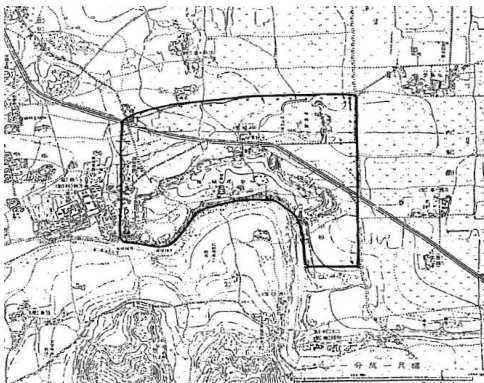
A. 궁궐을 다시 수리하였는데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중략)… 동궁을 짓고 궁궐 안팎의 여러 문 이름을 처음으로 정하였다.¹⁹⁾

18 李恩碩, 「新羅王京의都市計劃」, 『東アジアの古代都城』(奈良: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pp.90-91; 李恩碩,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 고고학(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서울: 한국고고학회, 2004),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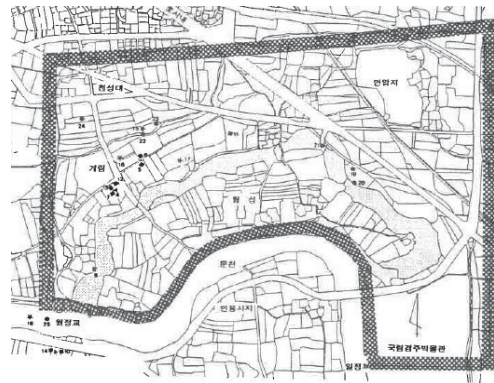
19 “重修宮闕, 頗極壯麗. …(중략)…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9年條)

사료 A에는 궁궐을 웅장하게 수리하고 동궁을 짓는 한편, 궁궐 안팎의 여러 문 이름을 정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봉4년개토’명 기와는 이 기사와 부합되면서 문무왕 19년에 단행된 왕경 정비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²⁰⁾ 그렇다면 박물관 부지도 679년을 기점으로 도로나 배수로, 담장 등의 축조가 시작되었으며,²¹⁾ 월성 일대의 정비와 맥을 같이 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박물관 부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 가운데 통일신라 이전으로 소급 가능한 것이 소수이고 대부분은 통일신라 이후로 편년된다는 점²²⁾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종래에는 월성 내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7세기 후반에 이르러 궁궐의 범위가 월성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 이해해 왔다.²³⁾ 특히 1990년대 후반 이래 확장된 궁궐(월성)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추정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도 12. 박방룡의 월성 범위 추정안(1996)



도 13. 이상준의 월성 범위 추정안(1997)



도 14. 김낙중의 월성 범위 추정안(1998)



도 15. 전덕재의 만월성 범위 추정안(2009)

〈도 12~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제시된 월성의 범위 추정안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동쪽으로는 월지(동북쪽)와 박물관 부지(동남쪽)를 포함하고 서쪽으로는 침성대 부근(서북쪽)과 월정교지(서남쪽)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와 함께 주목받았던 것은 다음의 사료이다.

B. ① 파사왕 22년(101)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_{月城}이라 이름 하였고, 혹은 재성_{在城}이라고도 부르는데 둘레는 1,023보였다. ② 신월성_{新月城} 북쪽에 만월성_{滿月城}이 있으니, 둘레가 1,838보였다.²⁴⁾

사료 B-②를 확장된 궁궐의 범위와 연관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월성으로 알려진 성곽이 신월성_{新月城}이며, 〈도 12~15〉에 표시된 것처럼 확장된 궁궐(월성)의 가장자리를 따라 토장성벽_{土牆城壁}을 돌렸고 그 형태가 마치 만월_{滿月}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만월성_{滿月城}으로 불린 것으로 이해한다.²⁵⁾ 그런데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서 확인된 동서도로는 궁궐의 범위 또는 경관과 관련한 이와 같은 종래의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도 7〉의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박물관 주차장 부지와 그 동쪽의 토지 구획 양상을 고려하면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는 동쪽으로 연장되어 박물관의 미술관 부지에서 조사된 최대 너비 23.7m의 남북도로²⁶⁾와 교차하고, 더 나아가 구항동 가스관 매설지에서 확인된 도로²⁷⁾와 직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확장된 궁궐의 가장자리를 따라 흙으로 쌓은 성벽이 있었다는 견해는 자연스레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동서도로의 존재를 고려하면, 7세기 후반

20 ‘의봉4년개토’의 의미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이동주,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歷史學報』 220(2013), pp.3-6 참조.

21 박물관 부지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유구가 679년부터 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박물관 부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결통로 부지나 미술관 부지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출토품 가운데는 중심연대가 8세기인 경우가 많아서 월성 또는 월지에서 인접하지 않은 유구의 경우 편년이 늦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한상, 앞의 논문(2005), pp.280-28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 부지 내의 유구는 일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2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02), pp.268-269;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16), pp.135-137.

23 朴方龍, 앞의 논문(1996); 앞의 책(2013) 재수록, pp.193-199; 李相俊, 앞의 논문(1997), pp.159-162; 金洛中, 앞의 논문(1998), pp.232-235.

24 “婆娑王二十二年, 於金城東南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周一千二十三步. 新月城北有滿月城, 周一千八百三十八步.”(『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疆域條)

25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pp.208-209;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6(2005), pp.187-190; 전덕재, 『新羅 王宮의 配置樣相과 그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7(2006); 『신라 왕경의 역사』(서울: 새문사, 2009) 재수록, pp.226-228.

26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보고서(2002), pp.14-15.

이래 확장된 궁궐의 범위에 과연 박물관 부지가 포함되지도 다시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도로는 너비가 15m에 이르러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분류되는 신라 왕경의 도로 가운데 대로에 해당한다²⁸⁾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당나라 장안성이나 일본 후지와라쿄[藤原京]·헤이조쿄[平城京]의 경우, 궁궐 내부에서 도로 유구가 확인된 예는 없다. 삼국통일 후 궁궐을 일신하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동서도로를 축조하였다는 점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 공간과 남쪽 공간의 성격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 부지 및 그 남측 부지에서 확인된 유구와 출토품이 관심을 끈다. 필자는 기왕에 박물관 부지에서 제의적 성격이 강한 우물 2기가 조사되었고, 신라에서 의례와 교육 등을 담당하였던 예부禮部의 별칭인 ‘남궁南宮’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점 등을 근거로 박물관 부지는 예부의 관할 하에 있던 시설 또는 공간으로 이해한 바 있다.²⁹⁾ 그 이후 박물관의 남측 부지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변동궁세택辛番東宮洗宅’이란 글씨가 새겨진 청동접시가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박물관 부지에서 조사된 우물과 마찬가지로 제의적 성격이 강한 우물과 그 내부에서 ‘동궁아東宮衙’란 글씨가 새겨진 항아리가 출토되었다.³⁰⁾ 이러한 출토품은 박물관 남측 부지에 위치한 유적이 일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에 동궁과 관련한 관아가 있었거나 궁궐과 관련한 부속 건물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³¹⁾

박물관 남측 부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동서도로 1기와 남북도로 2기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방坊’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온전한 단위 구획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규모는 대략 140×140m에 이르는데,³²⁾ 이 공간 전체를 동궁과 관련시키기는 면적이 너무 넓다. 그렇다면 동궁에 소속된 관아를 비롯한 중앙행정관부가 위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통일신라의 중앙행정조직은 44개의 행정관부를 비롯한 170여 개의 관부

27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서 확인된 동서 도로를 동쪽으로 연장시켜 보면 구황동 가스관 매설지의 S760~S910 구간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가스관埋設地 發掘調査報告書』(1996), pp.79-85]와 직교하게 된다. 한편, 구황동 가스관 매설지는 너비 6m 가량으로 남북 방향으로 긴 구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유구의 존재는 확인하였지만, 도로의 규모나 방향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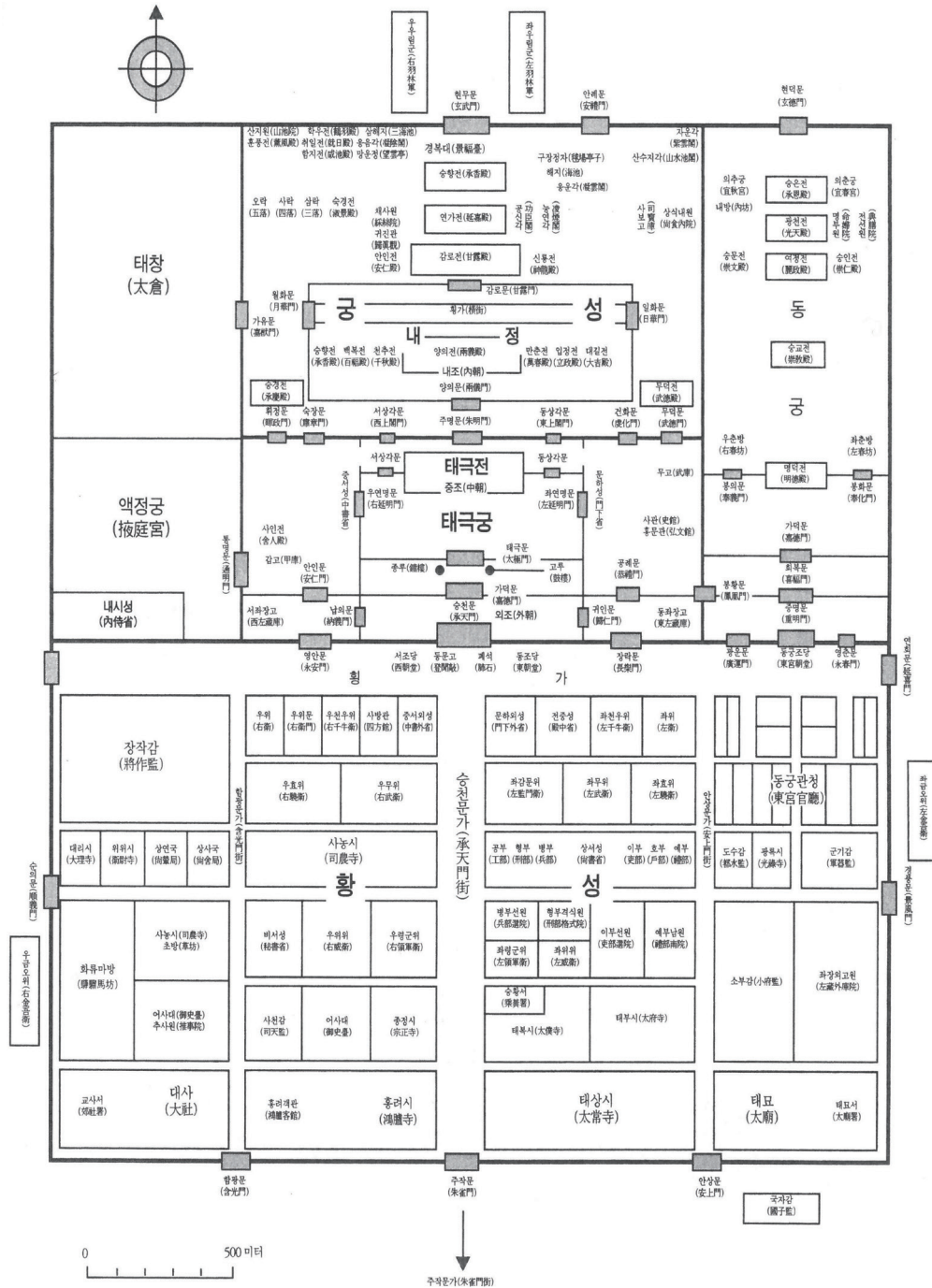
28 박방룡은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5.5m 내외는 소로, 9m 내외는 중로, 15.5m 이상은 대로로 분류한 바 있다[앞의 논문(1998), p.178]. 그 이후 제시된 신라 왕경 도로의 분류안도 박방룡의 분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제시된 신라 왕경의 도로 분류안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의 도로』(2016), p.439 참조.

29 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1(2011), pp.160-168.

3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II -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2014), p.273.

31 高麗文化財研究院, 『慶州 仁旺洞 王京遺蹟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확장부지 내 유적 I-』(2014), p.209;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2014), p.274.

32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2014), p.271 및 p.275.



도 16. 중국 장안성의 궁성과 황성(妹尾達彦 著, 최재영 역, 2006)

로 구성되었고 총 관원수가 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³³⁾ 170여 개의 관부가 자리할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면 박물관 남측 부지까지 중앙행정관부가 위치하였다고 보아도 그리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즉, 박물관 부지와 그 남측 부지에는 통일신라의 중앙행정관부가 위치하였던 것이다.³⁴⁾ 따라서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를 기준으로 그 북쪽 공간은 궁궐로, 그 남쪽 공간은 중앙행정관부가 위치한 관아 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서 확인된 동서도로는 단지 토지를 반듯하게 구획하는 기능 외에도 궁궐과 관아 구역을 구분 짓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횡가橫街’로 불리는 동서도로를 사이에 두고 궁성宮城과 관아가 밀집한 황성皇城으로 나뉘었던 중국 수·당대의 장안성을 떠올리게 한다(도 16).³⁵⁾ 물론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를 장안성의 횡가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궁궐과 관아 구역을 구분 짓는다는 기능에 주목하고 싶다.

IV. 맺음말

1974년 박물관 부지에서는 도로 유구와 배수로, 석렬,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가 발굴조사되었다. 신라 왕경 내에서 박물관 부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에 조사된 유구와 관련해서는 1975년 1월 1일자 『박물관신문』에 약보고만 이루어진 채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2016년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1974년에 조사된 유구는 박물관 부지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확인된 유구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유구는 주차장 부지에서 확인된 동서 방향의 배수로 및 그 북쪽으로 연결해 잔돌이 깔린 일종의 부석 유구이다. 부석 유구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도로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유구 도면을 검토한 결과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의 너비는 15m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수로가 신라 왕경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도로의 측구와 흡사하다는 점이나 지적도에서 박물관 주차장 부지에서 동쪽으로 직선에 가깝게 이어지는 실선이 확인된다는 점 등은 주차장 부지의

33 申澧植,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한국사 9-통일신라-』(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p.115.

34 국왕을 시종하고 시위하는 등의 관부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행정관부는 박물관 및 그 남측 부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35 수·당대 장안성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妹尾達彦 著,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서울: 황금가지, 2006), pp.126-139 참고.

부석 유구가 도로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는 박물관 부지 일대가 7세기 후반 이래 확장된 궁궐의 범위에 과연 포함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나아가 동서도로를 기준으로 궁궐과 행정관부가 위치하는 관아 구역이 나뉘게 된다. 이는 중국 수·당대의 장안성이 ‘횡가’라고 불리는 동서도로를 기준으로 궁성과 관아 구역이 나뉘었던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의 고대 도성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동서도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궁궐이나 왕경을 재편하면서 당나라 장안성을 참고하였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박물관 부지는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개별 유구의 성격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1968년이나 1974년 조사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도로 유구를 중심으로 1974년에 조사된 박물관 부지의 유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편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다 보니, 무리하게 논지를 전개하였거나 유구 해석에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추후 신라 왕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高麗文化財研究院, 『慶州 仁旺洞 王京遺蹟 -국립경주박물관 남측 확장부지 내 유적 I-』, 2014.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가스관埋設地 發掘調査報告書』, 1996.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本文)』, 200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의 도로』, 2016.
-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2002.
-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1974年 發掘調査-』, 2016.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II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2014.
- 鄭良模·姜友邦,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一次調査」, 『박물관신문』 43호, 국립중앙박물관, 1974.
- 鄭良模·姜友邦, 「新築 慶州博物館 境內 新羅時代 遺構 第二次 調査」, 『박물관신문』 45호, 국립중앙박물관, 1975.
-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27, 韓國上古史學會, 1998.
- 朴方龍, 「新羅 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考古歷史學志』 11·12, 東亞大學校博物館, 1996; 『新羅都城』, 학연문화사, 2013 재수록.
-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 申澧植,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한국사 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 禹成勳, 「新羅王京 慶州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동주, 「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歷史學報』 220, 歷史學會, 2013.
-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 嶺南考古學會, 1997.
-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6,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국사학과, 2005.
- 李恩碩, 「新羅王京의 都市計劃」, 『東アジアの古代都城』,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 李恩碩, 「왕경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시대 고고학(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2004.
- 이한상, 「慶州 月城 東南쪽 王宮遺蹟 調査의 成果 -'南宮'의 景觀復原을 위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6,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국사학과, 2005.
- 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1, 한국역사연구회, 2011.
- 張順鏞,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전덕재, 「新羅 王宮의 配置樣相과 그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7,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 국사학과, 2006;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재수록.

妹尾達彦 著,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鬼頭清明, 「新羅における都城制の發達」, 『朝鮮歴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藤島亥治郎, 「新羅王京建築史論」, 『建築雜誌』 44-530-531, 日本建築學會, 1930; 『朝鮮建築史論(복각본)』, 경인문화사, 1969.

藤島亥治郎, 『韓の建築文化 -わが研究五十年』, 藝艸堂, 1976; 이광노 역, 『韓의 건축문화-나의 연구 60년-』, 곰시, 2011.

Excavation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Site in 1974 and Results -Based on Remains of Roads-

Lee Hyuntae _Associate curator, Gimhae National Museum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site adjoins Wolseong, where the royal palace of the Silla Kingdom was located, and hence occupies a very important place in research of the Silla royal palace and the ancient royal capital. The site has been excavat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During construction work on the new Gyeongju National Museum building, some of the archaeological features were damaged, which led to emergency excavations being carried out in 1968 and 1974. As yet, no official report has been written on the features excavated in 1968, while the features excavated in 1974 were revealed in a recently published excavation report. Hence,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excavated in 1974.

During excavations of the site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parking lot and the area west of the Silla History Hall, various features such as drainage channels, stone alignments, and building sites were identified. The feature that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were the bricks running northward connected to the long drainage channel extending from east to west. In relation to this feature, past research had raised the possibility of it being a road. Examination of plans h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road around 15m wide that ran east to west. This feature was discovered on the site of the parking lot situated east of the front door of Gyeongju National Museum. Because it runs in the east-west direction it divides Wolseong and the museum site into two separate parts.

Up until now,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area around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site wa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xpanded royal palace of Silla following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However, a road 15m wide was laid east to west between Wolseong, which was the palace area, and the present museum site. In the ancient walled cities of China or Japan, it is rare to find a wide road running through the royal palace. Hence the fact that a wide road was located between Wolseong and the museum site suggests that the area north of the road was of a different nature to the area south of the road.

Based on excavated features and artifacts so far, it is considered highly possible that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site and the area south of it formed an area for government offices. Given this, the area north of the road is considered to have been the palace area and the area south of i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government offices were concentrated. An example of a city divided into the palace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by a road running east to west is the ancient Chinese capital of Chang'an during the Sui and Tang dynasties (walled city of Xi'an). Of course, based on materials gathered so far,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 east-west road dividing Chang'an into the palace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long the same lines as the east-west road discovered in the site of the parking lot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But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y Silla, it is possible that Silla reorganized the palace or the capital with reference to Chang'an of the Tang Dynasty, and in this light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features discovered on the site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s called for.